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음 5월 17일) 제15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삼성 새만금 투자 사실상 철회

삼성그룹의 풍력발전 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어 삼성그룹은 향후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0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체결한 새만금 투자 MOU를 철회한 것은 아니나,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이고 현재 주력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중이다"며 "앞으로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 청장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꾸준히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유선을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측은 삼성이 투자 MOU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대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나 신규 투자 계획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1단계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2단계 투자 시기를 기대하고는 있으나 그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당시 정부(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와 전북도·삼성그룹이 체결한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의 내용은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뉘어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중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단계사업 증설과 함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일 새만금청의 발표에 따라 1단계 투자계획이 철회됐음은 확인됐고 향후 투자의지는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결국 현실화되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지역 정치권 등에서 투자 무산에 대한 후폭풍이 당분간 거세게 불 전망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삼성이 신규투자 시 새만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현실회 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에따라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규제완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삼성MOU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새만금청 "삼성, 새 투자계획 있을 경우 우선 검토
향후 투자계획 내용과 계획은 밝혀지지 않아"
도-지역 정치권 등서 당분간 후폭풍 거세게 불 듯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구성

남원시, 시민대표 · 대학공동대표 체제 유지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일 정치권과 서남대, 시민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 재단 측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과 관련,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남대정상화 공동대책위원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본보 6월 17일자 1면〉

대책회의는 지난 16일 개최된 남원시 공동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대책위의 조직을 시민대표와 대학교의 공동대표체재를 유지하고 남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대학총장 등은 자문위원, 집행위원은 12인, 그리고 5개 각 분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각 대표를 선출해다.

또한,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 교육부 방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규탄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교비횡령 비리재단과 교육부 구조개혁팀의 밀약설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서명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은"남원시민들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의 의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시와 공동대책위가 연계 꼭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신공항 발표 '한발 빼기'

국토부, 밀양 · 가덕도 부지 둘러싼 지역간 갈등 따라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말 아껴… 빠르면 내일 발표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일과 방법 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되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된데다 타당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한 발 빼는 모양새여서 각종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20일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발표는 22~24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 당일(24일)이나 하루이틀 앞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어 23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DPi 관계자들이 20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표가 임박했다는 추측도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는 당초 ADPi의 분석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입국시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26일부터 대통령 특사로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방법을 두고도 각종 소문만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채 '긴급 발표'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보고서가 외국어로 써 있는 만큼 우선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스탠바이하고 있다.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ᆞ비리 변호사' 홍만표의 탐욕의 끝

'몰래 변론' · '탈세' · '부동산 투자' · '구속'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재테크 공식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무려 62건에 달하는 몰래변론을 통해 불법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한 뒤 불로소득까지 챙겨온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려온 홍 변호사 탐욕의 끝은 결국 구속기소라는 '사필귀정'으로 이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수임료는 34억 5600만원에 달한다. 탈세한 돈은 15억 5300만원 정도다.

홍 변호사는 주로 대기업 회장 등 규모 있는 사건을 맡아 변론한 뒤 수임료를 누락했다.

그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던 사건은 62건으로,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 변호사는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관예우 금지 조항에 따라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임료를 나눠 갖기로 하고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식으로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동양 사태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과 2014년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몰래 변론한 혐의가 있다.

홍 변호사는 제주 신라 카지노 사건이나 참엔지니어링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했다.

홍 변호사는 이처럼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빼돌린 수십억원을 부동산 투자로 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 매일 INDEX
4면 군산기지, IS 테러 대상되나
6면 마늘값 고공행진
8면 '환적자동차화물 허용해달라'
13면 클리블랜드의 '역전 드라마'